



2012년 1월 4일

#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김정훈 ☎ 3276-6230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계량분석 | 노근환 ☎ 3276-6226  
파생상품 | 안    혁 ☎ 3276-6272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 투자전략

2012년 외국인 순매수 분석

## • 이머징마켓 동향

홍콩 H지수, 새해 첫 거래일 3% 이상 급등

##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한국콜마 외 4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서흥캡셀 외 6종목

## • 산업/기업분석

자동차, 은행,

GS건설, LG디스플레이

##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 증시 캘린더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26(월)	12/27(화)	12/28(수)	12/29(목)	01/02(화)	01/03(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56.70	1,842.02	1,825.12	1,825.74	1,826.37	1,875.41
	등락폭	-10.52	-14.68	-16.90	0.62	0.63	49.04
	등락종목	상승(상한)	261(6)	317(4)	479(7)	334(12)	574(7)
		하락(하한)	451(3)	503(1)	338(0)	491(0)	263(0)
	ADR	108.70	100.06	98.78	95.53	93.26	95.12
	이격도	10 일	101.07	100.39	99.65	99.64	99.75
		20 일	99.45	98.70	97.86	98.13	98.40
	투자심리	40	40	4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425	521	375	336	319	438
	거래대금 (십억 원)	2,972	4,183	3,260	3,366	3,231	4,785
코스닥	코스닥지수	501.37	491.64	495.22	500.18	506.79	513.83
	등락폭	-0.99	-9.73	3.58	4.96	6.61	7.04
	등락종목	상승(상한)	292(11)	468(20)	545(19)	568(29)	617(29)
		하락(하한)	539(1)	490(4)	395(1)	387(4)	336(3)
	ADR	105.91	97.74	99.44	97.53	98.96	99.46
	이격도	10 일	100.37	98.81	99.80	100.75	102.03
		20 일	100.06	98.13	98.82	99.78	101.01
	투자심리	50	50	60	70	70	80
	거래량 (백만 주)	520	678	470	482	428	584
	거래대금 (십억 원)	2,311	3,065	2,203	2,369	2,527	3,667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87.3	798.8	1,240.6	159.7	240.6	485.1	119.6	52.0	183.6	591.9
	매도	3,158.2	502.8	956.6	147.5	111.3	430.1	59.7	21.9	186.0	200.9
	순매수	-970.9	295.9	284.0	12.1	129.2	55.1	59.9	30.1	-2.4	391.0
	01 월 누계	-963.7	193.7	516.1	38.6	130.2	215.2	74.6	40.5	17.1	253.9
	12 년 누계	-963.7	193.7	516.1	38.6	130.2	215.2	74.6	40.5	17.1	253.9
코스닥	매수	3,519.6	64.2	97.8	14.1	10.7	35.5	12.6	4.2	20.7	17.7
	매도	3,503.7	68.6	96.4	11.3	12.9	51.8	7.2	4.4	8.8	30.7
	순매수	15.9	-4.4	1.4	2.8	-2.2	-16.3	5.4	-0.2	11.9	-12.9
	01 월 누계	20.2	-13.1	10.7	6.9	0.9	-16.8	7.5	3.4	8.8	-17.8
	12 년 누계	20.2	-13.1	10.7	6.9	0.9	-16.8	7.5	3.4	8.8	-17.8

## 2012년 외국인 순매수 분석

1월 월간 밴드	1,750-1,920pt
2012 연간 밴드	1,650-2,250pt
12MF PER	8.7배
12MF PBR	1.06배
Yield Gap	8.1%P

- ▶ 2012년 외국인 순매수 추정치 +5.8조원으로 2011년 -8.2조원 상회할 전망
- ▶ 미국 등 글로벌 물가 안정이 외국인 순매수 확대의 선결조건임
- ▶ Appendix : Q&A (반도체, 디스플레이, 증권, 은행)

### ■ 2011년 외국인 순매수 동향

11년 KOSPI 매도주체는  
외국인 투자자

2011년 연초에 각 증권사에서 외국인 순매수 10~20조원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자는 2011년 동안 KOSPI 현물주식을 8.2조원 순매도했다. 순매도 규모도 큰 만큼 KOSPI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서 외국인 매도에 따라 KOSPI는 2011년 11.0% 하락했다.

기금이 매수주체로 나섰으나  
영향력은 제한적임

기금이 2011년 내내 꾸준히 매수하면서 외국인, 투신 매도에 따른 수급공백을 채워 주기는 했으나 KOSPI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2011년 동안 기금은 12.8조 원이나 매수했으나 KOSPI의 추세를 바꾸기 보다는 하락폭을 줄이는 완충제 정도의 역할에 그쳤다.

2012년에도 외국인의 매매동향은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 예금 등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지만 유럽 재정위기, 중국 부동산 규제 지속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 주식형펀드로 자금이 공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적어보인다. 또 헷지펀드, 자문형랩 등 자산관리상품(WM)에 대한 수요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따라서 2012년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표 1〉 월별 매수주체별 KOSPI 순매수 동향(2011년)

(단위: %, 십억원)

2012년	KOSPI 등락률	외국인	개인	투신	기금
1월	0.9%	347	1,378	-1,866	829
2월	-6.3%	-3,509	1,676	583	751
3월	8.6%	1,118	-2,415	-269	1,080
4월	4.1%	3,147	1,600	-4,637	729
5월	-2.3%	-2,556	1,949	540	-272
6월	-2.0%	-735	-608	840	2
7월	1.5%	1,371	-1,253	23	630
8월	-11.9%	-4,602	1,832	808	2,563
9월	-5.9%	-1,313	-430	531	1,936
10월	7.9%	1,648	-3,760	135	1,836
11월	-3.2%	-2,680	30	175	1,389
12월	-1.2%	-400	-1,835	252	1,291
합계	-11.0%	-8,165	-1,836	-2,885	12,763

자료: 한국투자증권

## ■ 2012년 외국인 순매수 추정

외국인 순매수 추정모델에서 2가지 변수가 중요하다. 하나는 미국 소비자 물가, 또 하나는 KOSPI의 12개월 예상 PE이다. 미국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불확실성, 원자재 가격, QE3 등 통화정책 가능성 등을 반영하고 KOSPI의 12개월 예상 PE는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 순매수 추정모델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순매수는 5.8조원으로 추정된다. 2012년은 KOSPI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낮고 미국 소비자 물가는 점차 하향 안정화 되는 상황이기에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2년 외국인 순매수 추정치 5.8조원은 11년 -8.2조원에 비해 긍정적이지만 09년, 10년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하회한다.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가 09년, 10년처럼 KOSPI의 가파른 상승을 이끄는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07년 -27.2조원  
08년 -34.6조원  
09년 +30.4조원  
10년 +21.4조원  
11년 -8.2조원  
12년 추정치는 5.8조원

〈표 2〉 분기별 외국인 투자자 KOSPI 순매수 추정치(2012년)

(단위: %,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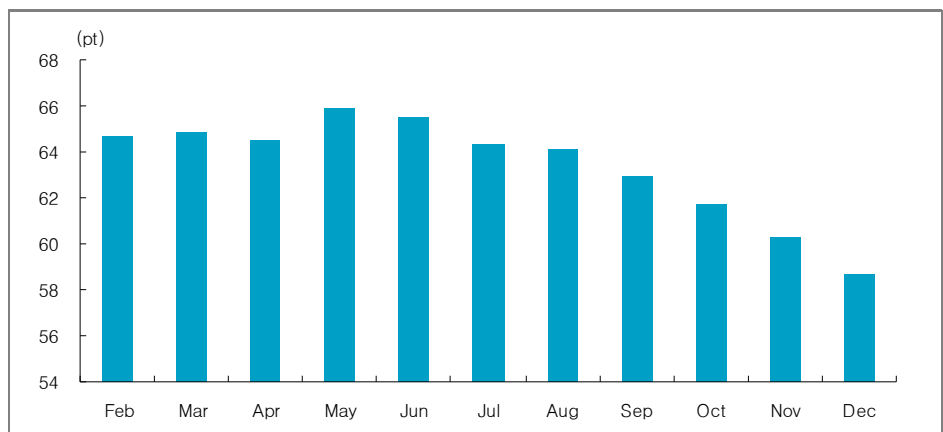
2012년	KOSPI 평균 PE	미국 소비자물가	외국인 순매수
1분기	9.0	2.5%	850
2분기	9.0	2.1%	2,015
3분기	9.7	1.8%	2,169
4분기	10.5	2.0%	765

자료: 한국투자증권

12년 외국인 순매수 추정치 5.8조원이 실제치와 오차가 작으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KOSPI 12개월 예상 PE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08년처럼 12개월 EPS가 25%가 하향조정된다면 KOSPI 지수는 하락하는데 KOSPI 12개월 예상 PE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이미 2012년 EPS 추정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이다. 게다가 11년 EPS 상향을 이끌었던 에너지, 자동차 업종과 같은 실적 주도주가 12년에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IT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은 불분명하다.)

〔그림 1〕 MSCI한국 12년 EPS 추정치 추이- 5월 이후 꾸준히 하향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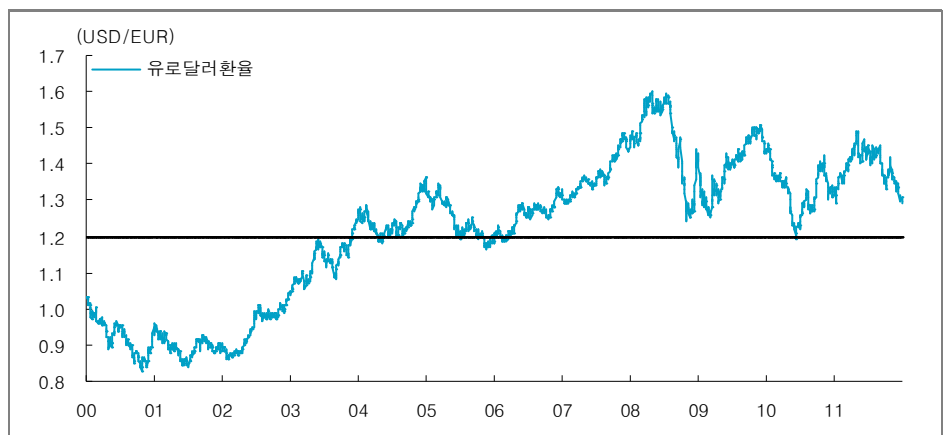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2012년 EPS는  
5월을 고점으로  
하향되고 있음

둘째, 미국 소비자물가 안정이 이어져야 한다. 다행히 지금은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달러 강세가 나타난다면 11년과 달리 12년은 물가가 하향 안정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리비아 원유 생산설비가 2012년 2분기를 기점으로 원상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으로 인해 오일 쇼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12월 말에 통과된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인 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 유로달러 환율 - 컨센서스로는 2012년 유로화 강세보다는 약세 가능성이 높아



자료: 한국투자증권

유로달러 환율은  
1.2달러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전망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KOSPI 실적 추정치가 불안하긴 하지만 12년에는 11년과 달리 글로벌 물가 안정과 함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표 3> KOSPI 순매수 추정치 테이블

(단위: % YoY, x배, 조원)

CPI/ PE	7.0	8.0	9.0	10.0	11.0	12.0
1.5	21.8	17.4	13.1	8.8	4.4	0.1
2.0	15.9	11.6	7.3	3.0	-1.4	-5.7
2.5	10.1	5.8	1.5	-2.9	-7.2	-11.5
3.0	4.3	0.0	-4.4	-8.7	-13.0	-17.3
3.5	-1.5	-5.9	-10.2	-14.5	-18.8	-23.2

자료: 한국투자증권

Appendix

■ 반도체 업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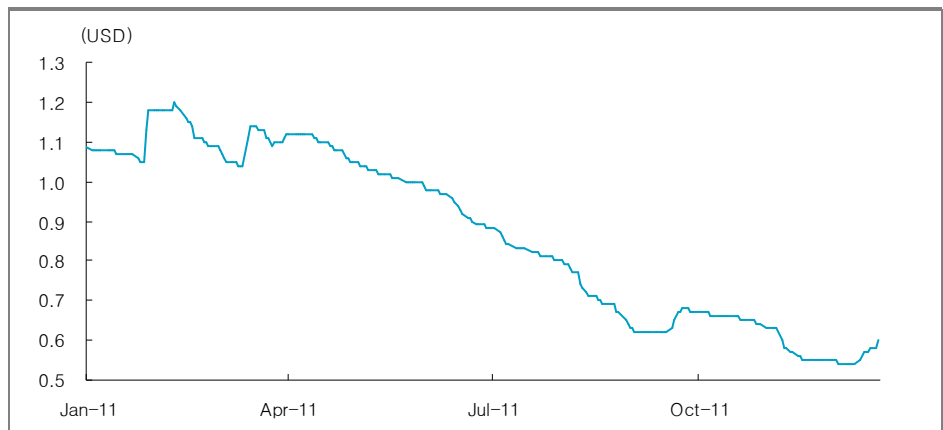
2012년 반도체

**Q : (김철중)** 뉴스에 따르면 2012년 낸드 수요는 태블릿 PC와 SSD를 장착한 울트라북이 주도할 전망입니다. 특히 1분기 아이패드3 출시와 함께 삼성에서도 태블릿PC 마케팅에 공격적으로 나선다면 2012년 상반기 낸드에 대한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문인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낸드 수급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디램은 태국홍수에 따른 12년 1분기 PC수요감소로 12년 1분기에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두업체들의 모바일 디램 전환 등으로 디램 공급이 제한되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디램 수급이 나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2012년 낸드, 디램의 업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림] DDR3 1Gb 디램 가격 추이



자료: 한국투자증권

**A : (서원석)** 2011년 NAND 수요를 이끌어 오던 휴대폰용 스토리지와 미디어 태블릿에 2012년부터 SSD가 본격 가세하면서 NAND 수요는 75% YoY 증가할 전망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도시바, IMFT, 하이닉스가 20nm대 제품 양산을 가속화하고, 신규 Capa 확대를 통해 NAND 수요를 맞춰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DRAM은 계절적인 수요 부진 및 PC OEM 및 DRAM 업체들의 높은 DRAM 재고로 1분기에도 공급 초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원가 경쟁력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후발업체들은 1월 중 대대적인 감산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태국 홍수에 따른 HDD 공급 부족은 1분기에도 이어지겠지만, 빠른 복구를 통해 공급 부족 영향은 완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킹스턴을 비롯한 채널업체들의 저가 매수 수요도 DRAM 가격 안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2012년 1분기 중 재고 조정을 거쳐 DRAM 가격 안정 이후, 2분기에는 본격적인 가격 상승을 전망합니다.

2012년의 화두 3가지

1. 일본 TV 구조조정
2. OLED
3. 스마트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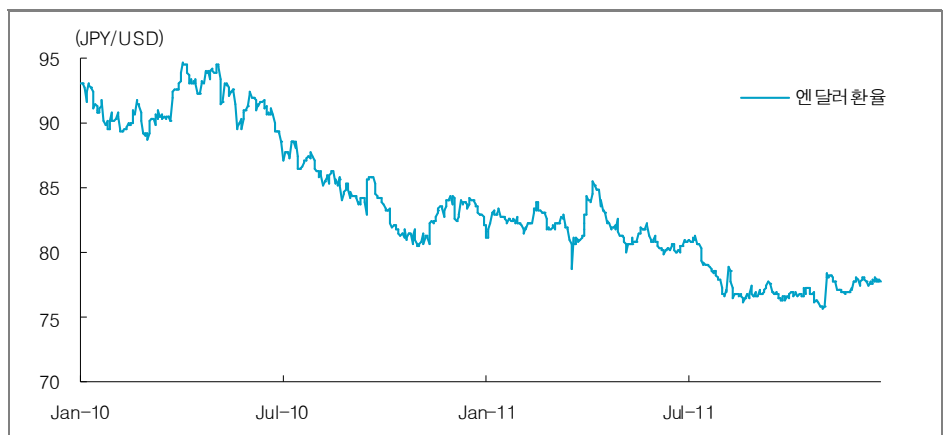
■ 디스플레이 업황

**Q : (김철중)** 각 증권사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TV 시장이 2012년에 중요한 화두는 1) 일본업체의 TV 산업 구조조정, 2) OLED TV 상업용 제품 출시, 3) 구글, 애플 등의 스마트 TV로 요약됩니다. 2012년 중국발 8세대 라인 증설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1) 일본의 TV 산업 구조조정, 2) LCD 패널 생산시설 OLED 전환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패널 공급 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3) 스마트 TV 활성화에 따른 수요창출도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럽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하면 고가시장인 OLED 시장은 2012년 하반기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애플TV, 구글TV도 마치 안드로이드 태블릿PC가 흥행에 실패한 것처럼 스마트TV도 수요 창출에 실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디스플레이 업종 실적의 턴어라운드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림]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투자증권

**A : (유종우)** 디스플레이 턴어라운드 시점을 2012년 2분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TV산업 구조조정은 최근 소니의 S-LCD 지분매각에서 보여주듯이 패널사업 철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패널수급 및 국내 패널업체들에게 긍정적입니다. 또한 set사업 차원의 구조조정은 이미 2년전부터 소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 동안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국내패널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했고, 향후에도 이런 추이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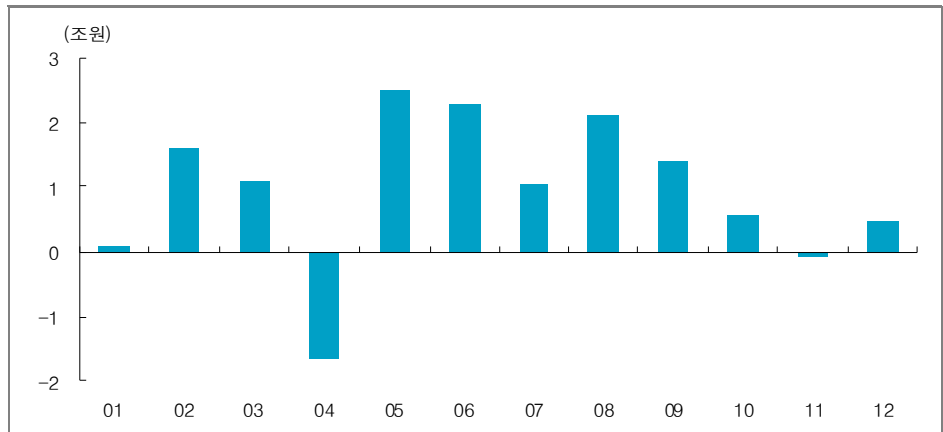
## ■ 증권 업황

### 2012년의 신규사업

**Q : (김철중)** 증권업종의 가장 큰 문제는 KOSPI와의 상관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하락하면서 KOSPI는 상승해도 증권업종의 이익은 정체되고 증권업종 지수의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우증권 등 대형증권사의 경우에는 증자로 인해 자본은 늘어난 상황에서 뚜렷한 신규 수익사업은 없어 ROE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헛지펀드를 고객으로 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이 2012년의 신규 수익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증권업종의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하면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보다는 주식형펀드 등 자산관리 수수료 증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2012년 펀드 동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림] 2011년 월별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 추이



자료: 한국투자증권

**A : (이철호)** FY2012년 당사가 추정하고 있는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원 수준으로 (당사 2012년 KOSPI 전망 1,650~2,250p 반영) FY2011년 전망치 9.2조원에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다소 안정되는 가운데 트레이딩손익 등의 회복되며 이익은 소폭 늘 전망입니다.

올해에는 총선 및 대선이 예정돼 있어 증권업을 둘러싼 각종 정책 향방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 총선을 거치며 장기펀드 세제혜택 법안 통과에 진전이 있을 지의 여부 (즉 연내 장기펀드 세제혜택 시행 가능성), 하반기 대선 공약과 관련해 주식양도차익과세 방안의 현실화 여부 등에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실질 예금금리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 예금은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여전한을 의미하지만 주식투자 대기 자금이 그만큼 풍부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 7~9월 이후 국내 투신권은 08년 위기 후 처음으로 순매수로 돌아섰고 연기금은 외국인 매도에 상응하는 규모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낮을 만큼 낮아진 증권주의 현 주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령화로 저금리가 추세화 되는 과정에서 주식의 매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업의 발전은 증권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여타 금융권역 중 증권업의 성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증권업종에 대해 '비중확대'를 유지합니다.

### ■ 은행 업황

#### 은행은 대출 성장이 제한될 전망

**Q : (김철중)** 은행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낮지만 대출자산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CD, 은행채를 제외한 예대율은 여전히 113%로 04년 평균 104%를 상회하고 있어 예금 증가 없이 대출이 늘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한국 은행업종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명확한 투자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2년 상반기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업종의 NIM이 소폭 훼손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2년 은행업종의 저점과 고점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A : (이교은)** 현재 은행주가 시사하는 시스템 리스크는 과도하다고 보여집니다. 주가가 내포하고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지난 10년 내 최대 수준이나 우리는 현 상황이 지난 10년 내 최악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질 때 역사적으로 은행주가 가장 크게 반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업종의 대출성장률이 낮은 만큼 주가의 상단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2년 은행업종 대출성장률은 6.2%로 2012년 7.7%를 하회할 전망인데다 NIM도 2.84%로 3bp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업종의 PBR 0.6을 저점, 0.8을 고점으로 보는 박스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주 주요일정

날짜	국가	내용
12/21	EU	ECB, 1% 저리에 3년 만기 장기대출 4,980억 유로 실시, 유럽은행의 디레버리지 속도를 늦출 전망
12/21	EU	S&P, 프랑스 신용등급이 AAA에서 강등되면 EFSF 가용재원은 4,400억 유로에서 2,930억 유로로 축소될 전망
12/21	미국	세계2위 소프트웨어업체 오라클, 부진한 실적에 12% 급락, 라이선스 매출액 2% 증가로 예상치 6~16% 상회
12/21	미국	11월 기존주택 매매건수 442만건, 4% MoM, 10월 497만건이 425만건으로 하향조정됨, 기존주택 매매 저조함
12/21	헝가리	S&P는 헝가리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낮춰 투기등급으로 강등, 국내외 경제상황 취약함
12/22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36.4만건으로 전주대비 4000건 감소, 12월 비농업취업자수 18만명 증가 전망도 나옴
12/22	미국	미시건대 12월 소비자신뢰지수 69.9(예비치 67.7), 11월 64.1, 예상치 68.0 상회, 6개월내 최고치
12/22	미국	민주당, 공화당, 급여소득세 감면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 23일 감면 연장안 통과 예정
12/23	한국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12년 3월 증자 발언 이후 대규모 증자 추진설 조희공사 요구됨
12/23	한국	미래에셋 등 9개 자산운용사는 총 12개의 헷지펀드 1호를 출범함, 개인투자자 최소 5억원 투자가 투자요건임
12/23	한국	LG화학, 2차전지 분사계획을 공시를 통해 부인, 2차전지 사업부문 분사 가능성으로 하락했던 주가가 반등함
12/23	미국	11월 내구재 주문은 3.8% MoM, 4개월 만에 최저치, 10월 0.0% 상회, 항공기 등 내구재주문 호조
12/23	미국	미국 의회 급여소득세 감면 2개월 연장안을 최종 통과, 전일 합의에 따른 후속처리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12/23	미국	11월 개인지출 0.1% MoM으로 예상치 0.2% 하회, 개인소득도 0.1%로 예상치 0.2% 하회함, 가계예산 제한적임
12/24	EU	S&P가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조정 관련 결정을 1월에 정할 예정이라고 각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로이터 보도함
12/25	한국	삼성전자, 저전력에 강점을 가진 삼성전자의 AP 판매 호조로 11년 AP분야에서 70%의 점유율을 돌파할 전망
12/26	한국	서울고법 행정7부, KT 2G 폐지 승인 유효하다고 판결함, KT는 2G를 1월 3일 중단하고 LTE 서비스 개시할 예정
12/26	한국	소니, 삼성전자와의 LCD 사업 합작사인 S-LCD의 모든 주식을 2012년 4분기까지 삼성전자에 매각할 방침임
12/26	중국	세쉬런 재정부 부장, 부동산세 시범 도입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연장할 것이며 자원세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
12/26	미국	시장조사업체 CGP, 미국 소매업체 26일 290억 달러 매출로 블랙프라이데이 270억 달러 매출을 상회할 전망
12/27	일본	노다 일본총리와 원바바 중국총리는 25~26일 정상회담에서 2012년부터 한중일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합의
12/27	한국	삼성전자, 삼성LED를 인수합병, 삼성전기 보유 삼성LED 지분 매수가격 2,830억원으로 예상치 5,000억 하회
12/27	한국	증권사 선물매도, 현물매도 등 차익거래 주문실수로 KOSPI는 장중 2.33% 하락하는 일시조정이 나타남
12/27	미국	미 재무부, 환율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은 불충분하지만 환율을 조작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12/27	미국	케이스실러 10월 -3.4% YoY, 9월 -3.5% 상회, 다만 예상치 -3.2% 하회, 일부 주택가격은 안정되고 있음
12/27	미국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12월 64.5로 11월 수정치 55.2, 예상치 58.3 대폭 상회, 소비심리 개선 두드러짐
12/27	미국	시어스홀딩스, 시어스 백화점, K마트 120곳 폐쇄, 영업이익 급감에 따른 영업점 매각 등 구조조정 실행
12/27	EU	크리스마스에 유럽 시중은행은 ECB에 최대규모인 4,120억 유로 초단기 예금(ECB 예금금리 0.25%) 예치
12/27	이태리	2012년 4,500억 유로로 국제발행규모가 큰 이태리 정부는 국제 발행시 개인투자자 참여시킬 예정임
12/27	이란	라히미 부통령, 서방국가가 자국 원유수출에 제재를 가한다면 호르무즈해협 원유 수송흐름을 중단시킬 수 있음
12/28	한국	한진해운, 초대형 해운연합 출범으로 연합 터너라운드 전망, 노선합리화 등으로 컨테이너선 운임 안정화 기대
12/28	이태리	90억유로 규모의 6개월 만기 단기국채 발행, 발행금리 3.251%, 응찰률도 1.7배로 단기국채 발행 호조
12/28	이태리	29일 3년/10년물 장기국채 85억 유로 입찰에 대한 우려로 이태리 10년만기 국채금리는 다시 7%대로 상승함
12/29	이태리	장기국채 85억 유로 입찰, 3년 5.62%, 10년 6.98%로 발행금리 낮아져, 다만 70.2억 유로 발행에 그침
12/29	스페인	11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실패, 11년 재정적자 8%로 당초 계획한 6% 상회, 12년 재정건축 강화할 예정
12/31	한국	12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 신설, 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 찬성 157, 반대 82
12/31	이란	오바마 대통령,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금지 등 이란 제재 방안에 서명함, 6개월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
01/01	중국	12월 제조업 PMI 50.3, 11월 49.0 상회, 부동산 경기 둔화에도 중국 춘절효과로 제조업 경기 소폭 개선됨
01/01	한국	12월 수출 12.5% YoY 497억 달러, 수입 14.0% YoY 457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40억달러, 예상치 수준
01/01	이란	마무드 아바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서방의 제재에 대해 "힘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힘
01/02	EU	9일 베를린에서 독일, 프랑스 임시 정상 회담 개최, 1월 30일 EU정상회의, 유로본드 관련해서 사전논의할 전망
01/02	한국	12월30일 대형 유통업체 규제안 가결, 대형마트(SSM 포함) 24시간 영업 규제, 월 1~2회 의무 휴일
01/02	한국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체의 매출 3%를 카지노세로 부과하는 법안의 적용시기를 12년에서 14년으로 유예함
01/02	한국	2011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YoY, 08년 4.7% 이후 최고치, 원자재, 농산물 가격 상승이 두드러져
01/02	독일	12월 제조업 PMI 48.4, 11월 47.9, 예상치 48.1을 모두 상회, 독일 제조업 지표 호조가 투자심리를 자극함
01/03	한국	삼성전자, 110.5만원으로 최고가 경신, 6일 발표 예정인 4분기 잠정실적 영업이익 5.1조원으로 전망됨
01/03	한국	미국 ISM 제조업 지표 기대감, 프로그램 매수 9536억원 등에 힘입어 KOSPI 2.69% 급등함

## 홍콩 H지수, 새해 첫 거래일 3% 이상 급등

- ▶ 중국, 12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각각 50.3, 56.0으로 경기판단 분기점 상회
- ▶ 중국 상무부, 이번 주 내 신규 소비 부양책 발표 가능성 시사
- ▶ 중국 공업정보부 12.5규획 기간 산업별 노후 설비 폐쇄 목표 발표, 11.5규획 대비 목표 상향

### ■ 중국 시장

상해증시 휴장

New Year's Day로 휴장

### ■ 홍콩 시장

H지수 3% 넘게 상승  
모든 업종 강세 마감

New Year's Day 휴일 후 개장한 홍콩 H지수는 2012년 첫 거래일에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다. 중국의 12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가 모두 50 이상으로 반등한 것이 가장 큰 호재였고 이번 주 내 가전하향, 이구환신을 대체할 새로운 소비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춘절 전 지준율이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그 외에 미국 경제지표 호조 및 유럽증시 강세 등의 대외 요인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자동차, 주류 등 소비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 에너지, 은행주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철도 건설투자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건설주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3(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199.42	휴장	-0.24	0.00	0.00
홍콩 H	10,235.17	3.01	2.92	3.01	3.01
인도 SENSEX	15,834.66	2.04	-0.25	2.46	2.46
러시아 RTS	1,409.52	2.10	-0.28	2.00	2.00
브라질 보베스파	57,829.27	1.89	0.22	1.89	1.89
베트남 VN	350.00	-0.44	-0.76	-0.44	-0.44
MSCI 이머징마켓	917.08	0.08	-0.78	0.08	0.08

주: 3일 오후 5시 20분 기준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종목/테마	내 용
<b>CJ제일제당(097950)</b> <b>▶308,000원(+4.41%)</b>	<b>신약 개발 가속화 기대감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리더스와 항암 및 백신 신약 개발과 관련해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약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li> <li>- 아울러, 전일 아시아나항공 등 대한통운 최대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20.8%의 지분을 보유중인 동사가 최대주주로 변경됐다는 소식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li> </ul>
<b>SK컴즈(066270)</b> <b>▶12,900원(상한가)</b>	<b>페이스북 연내 상장 소식 및 스마트폰 서비스 지원 강화 소식에 상한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이스북의 연내 상장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업체로 해외진출을 추진해 온 동사가 부각되며 상한가</li> <li>-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자 확대 및 이용시간 증가로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PC 서비스의 핵심 수익모델을 모바일로 확대해 수익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li> </ul>
<b>미래컴퍼니(049950)</b> <b>▶10,600(상한가)</b>	<b>엣지그라인더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에 상한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주요 IT 제품의 슬림화 추세와 함께 엣지그라인더 장비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 성장 기대감에 상한가</li> <li>- 또한, LG디스플레이 이외 글로벌 IT세트업체로 장비 공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올 한해 큰 폭의 외형성장 기대</li> </ul>
<b>정유/화학주</b>	<b>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제품 수급 개선으로 정제마진이 저점을 벗어나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li> <li>- SK이노베이션(096770, +6.41%), 송원산업(004430, +5.73%), 국도화학(007690, +5.49%), 이수화학(005950, +5.30%), S-Oil(010950, +4.48%), GS(078930, +3.70%) 등 강세</li> </ul>
<b>대선 관련주</b>	<b>대선 주자들의 본격적인 활동에 따른 지지율 상승 기대감에 관련주 연일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자 이에 따른 지지율 상승 기대감에 관련주 연일 강세</li> <li>- EG(037370), 신우(025620), iMBC(052220, 이상 상한가), 피에스엠씨(024850, +13.48%), 아가방컴퍼니(013990, +7.34%), 코엔텍(029960, +5.22%) 등 강세</li> </ul>
<b>태양광발전주</b>	<b>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태양광 업체인 LDK가 태양광의 제조 및 유통 채널을 보유한 독일의 Sunways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업체들의 흡수합병에 따른 향후 업황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며 강세</li> <li>- 엘오티베컴(083310, 상한가), 네팩스(033640, +6.67%), 이엠코리아(095190, +6.60%), 티씨케이(064760, +4.65%), 동진세미켐(005290, +4.38%) 등 강세</li> </ul>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유망종목: 한국콜마 외 4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한국콜마 (024720)	7,640 (+0.5)	7,6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화장품 사업의 성장세 및 공정수탁 확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의약 사업의 약진에 힘입은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 2010년 11월부터 본격 가동한 북경콜마는 2012년 매출액 약 150~180억원을 시현하며 손익분기점을 무난히 넘어설 전망</li> <li>- 의약/화장품 사업의 안정성, 선바이오텍 등 우량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세 및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 등을 감안할 때 상승 여력 상존</li> </ul>
대덕전자 (008060)	12,000 (+0.4)	11,95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DRAM 및 NAND 기판에 사용되는 CSP(Chip Scales Package) 출하량 확대에 힘입어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2012년 상반기 중 모바일 AP(Application Processor)용 기판인 FC-CSP(Flip-Chip Chip Scales Package) 양산으로 수익성 개선과 함께 성장동력 확보 기대</li> <li>-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확대에 따른 모바일 메인보드 기판(HDI; High Density Interconnection)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의 LTE 도입에 따른 장비 확충으로 MLB(Multi Layer Board) 또한 견조한 수주 모멘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li> </ul>
바이오랜드 (052260)	13,500 (+0.7)	13,4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식품 원료는 웰빙 트렌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거래처 물량 증가, 신규 거래처 확보, 품목 다변화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li> <li>- 독보적인 시장 위치와 웰빙트렌드로 인한 수혜 등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 상존</li> </ul>
이노와이어 (073490)	23,500 (+7.6)	21,85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이동사들의 LTE 관련 투자 본격화에 힘입어, 실적 개선 모멘텀 가시화. 4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li> <li>- 신규 통신망 투자가 진행된 이후에도 단말기 제조업체와 계속장비 생산을 통해 추가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업체인 Agilent와의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 확보도 가능할 전망</li> </ul>
인터토조 (119610)	13,000 (0.0)	13,0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컬러렌즈 호조와 국내 원데이 렌즈 비중 확대에 따라 매출 성장세 지속 전망. 신규 시장/거래처 개척을 통한 매출처 다변화 예상</li> <li>-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국내 M/S 는 내년 1 월 원데이 컬러렌즈(클라렌 아이리시스) 출시와 2012년 1분기 Capa 증설 효과로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됨</li> </ul>

※ 주)2012년 1월 2일 종가를 기준으로 단기 유망종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서흥캡셀 외 6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서흥캡셀 (008490)	15,400 (-0.6)	15,500 (1/2)	170.0	29.0	14.0	2,033	7.6
- 증설 이전으로 인한 하드캡셀 매출 증가 및 F&P(Food & Pharmaceutical)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은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2012년 예상 EPS 기준 PER은 7.6배로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 상존							
솔브레인 (036830)	41,500 (-0.7)	41,800 (1/2)	572.4	86.6	63.8	3,864	10.7
- LCD, 반도체, AM-OLED 산업에 걸친 다양한 제품구성과 탄탄한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여타 IT업체들에 비해 높은 실적 안정성을 보유							
넥센타이어 (002350)	18,300 (+1.4)	18,050 (1/2)	1,420.4	190.1	208.3	2,053	8.9
- 설비증설 효과, 브랜드 인지도 개선, OE(Original Equipment) 물량 증가, UHPT(Ultra High Performance Tire) 비중 증가세 등 사업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를 주목할 필요							
파트론 (091700)	14,750 (+0.3)	14,700 (1/2)	479.0	58.7	48.5	1,636	9.0
- i) 삼성전자 스마트폰 내 높은 제품 exposure, ii) 조도 센서 등 신규 제품 공급으로 제품 exposure 확대, iii) 높은 이익 가시성 등을 감안할 때 시장 관심은 지속될 전망							
영원무역홀딩스 (009970)	55,500 (+0.9)	55,000 (1/2)	1,603.0	348.4	125.7	11,643	4.8
- 자회사 골드윈코리아(지분율 51%) 및 영원무역(지분율 50%)의 실적 개선 지속 전망							
기아차 (000270)	68,100 (+2.4)	66,500 (1/2)	30,973.7	2,422.3	4,187.6	10,330	6.6
- 신흥시장 매출 비중 확대, 'Value Car' 이미지 강화, 디자인 혁신, 원화약세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성장기조는 지속될 전망							
일진디스플레이 (020760)	12,700 (+7.6)	11,800 (1/2)	446.5	53.5	52.6	1,682	7.6
- 삼성전자 내 터치패널 공급업체 중 중대형 터치스크 부문에서 경쟁우위 확보 - 갤럭시탭2 출시,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주) 2012년 1월 2일 종가를 기준으로 중장기 유망종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목표치 3년 연속 초과 달성할 전망

### ■ 3년 연속 두자리수 성장을 보이며 659만대 판매

현대차와 기아차는 11년 전년대비 14.8% 증가한 659만대를 판매(10년 574만대(+23.6% YoY))했다. 이로써 3년 연속 두자리수 성장과 동시에 2년 연속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12년에도 산업수요는 전년대비 4.2% 증가하지만 양사는 9.2% 증가한 720만대(현대차 439만대(+8.3% YoY), 기아차 281만대(+10.8% YoY))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돼 글로벌 시장점유율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11년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405만대(+12.3% YoY)와 254만대(+19.2% YoY)를 판매하며 목표치인 390만대, 243만대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양사의 12년 판매 목표치는 700만대여서 3년 연속 초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탁월한 성장은 1) 해외공장 판매 비중 상승, 2) 지속되는 우호적인 환율, 3) 잇따른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 그리고 4) 계속되는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으로 인하여 지속될 전망이다.

### ■ 12월에도 판매 강세 지속

현대차의 12월 총 판매대수는 해외판매 강세(312,949대(+27.6% YoY), 수출 128,971대(+54.4% YoY), 해외공장 판매 183,978대(+13.7% YoY))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1.6% 증가한 371,448대를 기록했다. 내수판매는 같은 기간 2.7% 감소한 58,499대이다. 기아차 역시 해외판매 강세로 전년동월대비 7.7% 성장한 230,110대를 기록했다. 내수판매는 0.4% 감소한 45,056대를 기록했지만, 해외판매는 9.8% 증가했다(수출 105,791대(+11.8% YoY), 해외공장 판매 79,263대(+7.3% YoY)). 내수에서 기아차의 Morning(Ray 4,107대 포함)이 12,249대 판매되었고 현대차 Avante(10,500대), YF Sonata(9,160대)가 뒤를 이었다. K5는 7,725대 판매되었고 Sportage R과 Sorento R은 현대차의 동급 모델보다 많이 판매됐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 320,000원(12개월 forward PER 12배 적용, 역사적 최고치에서 20% 할인)과 105,000원(12개월 forward PER 11배, 업종 평균 PER)을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은행: 잔액 예대금리차보다 높아진 신규 예대금리차는 긍정적

### ■ 11월 예대금리차: 신규기준 2.14%로 전월 대비 8bp 확대

11월 신규기준 예대금리차는 2.14%로 전월 대비 8bp 확대되었다, 수신금리가 전월 대비 2bp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6bp 상승했기 때문이다. 수신금리부문에서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시장성 수신금리와 저축성예금 등 전 부문에서 고른 하락세가 나타났다. 대출금리 부문에서는 대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금리는 전월 대비 각각 9bp와 4b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 ■ 11월 은행 총대출: 6.2% YoY 증가, 특히 중소기업대출 증가가 돋보여

11월 은행 총대출은 전년 동월대비 6.2% 증가하며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기업대출은 25.2% YoY 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가계대출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소기업대출의 YoY 증가율은 2.9%로 전월의 2.2% 증가율보다 더 높아졌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1월까지 총대출 YTD 증가율은 7.4% 를 기록했다. 12월에는 기업대출의 상황으로 총대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2011년 총대출성장은 당사의 추정치 7.7% 대비 소폭 낮은 6~7% 수준을 전망한다.

### ■ 잔액 예대금리차보다 높아진 신규예대금리차는 긍정적

중소기업대출의 2011년 평균 예대금리차는 2.32%로 이는 동기간 대기업대출 (1.83%) 과 가계대출 (1.79%) 보다 각각 49bp, 53bp 더 높다. 즉,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높을수록 은행들의 수익성에 대한 기여도도 더 높아진다. 따라서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의 상승은 고무적이거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2.9%로 리먼 금융위기 이전 수준 (2009년 중소기업대출 증가율4.8%)에 아직 못 미치고 있다. NIM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전월 대비 2bp 축소되었다. 지속가능 여부에 대해선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신규 예대금리차가 8bp 확대된 2.14%를 기록하면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2.07%)보다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GS건설(006360)

## 매수(유지)

목표가: 158,000원(유지)

종가(1/2): 93,300원

## Vision 2020 발표- 투자를 통한 영역 확장을 예고

## ■ What's new: Vision 2020 발표, 10년간 5조원 투자를 통한 영역 확대

전일 GS건설의 'Vision 2020' 관련 컨퍼런스 콜이 있었다. 경영목표는 2010년 수주 14조원과 매출 8조원을 2020년에 각 35조원, 27조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목표 영업이익률은 7%대를 유지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은 2010년 28%에서 2020년 70%로 확대했다. 그 방안으로 1)정유 플랜트 등 기존 핵심사업 지속, 2)In-organic 성장을 통한 신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10년간 5조원의 투자 계획을 언급했는데 M&A/용지 매입이 총 투자의 70%, 현지 법인 설립 등 운영적 자원투자가 25%, R&D가 5%로 구성된다. 연평균 5천억원의 투자에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도 포함되므로 실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매년 부채비율 180%대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다(3분기 176%, 2010년 160%). 실제 최근 '이니마' 인수에서도 인수대금 3천억원 중 GS건설의 현금 투입은 총 인수액의 1/2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 ■ 신시장에 접근하는 가장 빠른 방법- M&amp;A로 offshore 시장 공략

GS건설은 지난 11월, 스페인 물업체 '이니마' 인수로 해수/담수플랜트 시장 진출 기회를 얻었다.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20억달러의 담수플랜트 입찰에 참여 중이다. 다음으로 역점을 두는 신사업은 offshore 시장 내 FPSO(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하역설비)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의 인수를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빠르면 2013년, offshore 시장에서 가시적 수주 결과가 기대된다. 유망 시장 진출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M&A나 지분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다. 고성장을 이어가는 글로벌 플랜트 업체 '페트로팩' 역시 2010년에 offshore의 설계능력 제고를 위해 4개의 관련 중소기업을 2천만달러에 인수한 바 있으며 이는 offshore 시장 확대의 주요인이 되었다[그림 3 참조].

## ■ 공격 투자로 경쟁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 차선호주로 지속 추진

한국업체의 주력시장인 중동 onshore 시장의 경쟁 심화를 감안하면 M&A를 통한 신속한 신시장 접근 전략은 긍정적 투자포인트다. 특히 유럽 위기로 해외 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한국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니마' 외에도 삼성물산이 작년에 인수한 '페러렐 페트롤레엄', 추가로 인수를 검토 중인 다수의 우량 업체들이 그 예다. 경쟁사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만드는 업체는 재무구조가 안정된 일부 업체로 제한돼 장기적으로는 큰 차별화를 야기할 것이다. GS건설은 1)3분기말 순차입금이 892억원에 불과하고 PF잔액도 지속적으로 감소 중(작년 3분기 2.5조원, 4분기 2조원)이며 2)올해 정유플랜트 시장 확대에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예상된다(작년 해외수주 52억달러, 올해 100억달러 예상). 이는 과감한 투자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차선호주와 SOTP 방식으로 산출한 목표주가 158,000원을 유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09A	7,615	611	519	379	7,653	(0.2)	655	14.2	7.6	1.6	12.0
2010A	8,324	594	542	402	8,116	6.0	638	14.3	8.0	1.6	11.7
2011F	9,064	701	610	452	9,133	12.5	745	10.1	6.2	1.2	12.0
2012F	10,134	657	590	437	8,838	(3.2)	701	10.6	6.3	1.1	10.5
2013F	12,246	849	782	580	11,717	32.6	894	8.0	4.8	1.0	12.6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LG디스플레이(034220)

매수(유지)

목표가: 36,000원(유지)

종가(1/2): 24,950원

## 4Q11 Preview: 실적개선 모멘텀으로 밸류에이션 상승 기대

## ■ 업종 내 top pick, 목표주가 36,000원 유지

지난 4분기 및 1분기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동사에 대해 업종 top pick 및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연말 미국 TV판매 호조와 패널점유율 상승으로 계절적 비수기인 12월 이후에도 국내 패널업체 가동률은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분기 가동률 상승으로 3분기 대비 적자폭을 크게 줄였고, 1분기 말에는 소폭이지만 패널가격 상승으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하반기에는 대형 OLED TV 생산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6,000원(2012년 추정 BPS에 목표PBR 1.2배 적용)을 유지하며 업종 내 top pick으로 제시한다.

## ■ 출하량 증가로 4분기 영업적자 91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크게 축소

4분기 패널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8% 증가하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4분기 영업적자는 916억원으로 전분기 4,920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 출하량 증가는 북미 TV수요 호조의 영향과 TV패널시장 내에서의 점유율 상승에 기인한다.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의 LCD TV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고,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출하량 기준 LCD TV패널 시장점유율은 3분기 49%에서 4분기 55%로 높아져 가동률을 전분기와 비슷한 9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대만업체들의 경우 패널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미국 TV수요 회복의 수혜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 ■ 1분기에도 실적 개선세 지속될 전망

지난해 3분기를 저점으로 한 실적 개선세는 2012년 1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계절적으로 패널수요가 지난 4분기 대비 감소하겠지만, 완제품업체와 패널업체들의 낮아진 재고로 패널수급 및 패널가격은 안정이 유지될 전망이다. 계절적 패널수요 회복과 6월 런던올림픽을 대비한 TV패널 수요, 2분기 초의 TV신제품 수요가 집중되는 3월부터는 패널가격의 소폭 상승도 예상된다. 패널가격 상승과 더불어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1분기 영업적자는 287억원으로 4분기 대비 줄어들 전망이다.

## ■ iPad3 패널 시장에서도 동사의 점유율 하락은 크지 않을 전망

애플의 iPad3에는 Oxide TFT LCD패널과 기존의 a-Si TFT LCD패널이 혼용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는 a-Si TFT패널을, 샤프는 Oxide TFT패널을 공급할 전망이다. 하지만, 샤프의 Oxide TFT패널 양산 시점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LG디스플레이도 Oxide TFT패널 공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패드3 시장에서 동사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09A	20,038	1,010	1,013	1,118	3,124	2.8	3,852	12.6	3.8	1.4	11.6
2010A	25,512	1,310	1,266	1,156	3,232	3.5	4,236	12.3	3.7	1.3	11.0
2011F	24,557	(871)	(1,043)	(858)	(2,397)	NM	2,732	NM	4.3	0.9	(8.1)
2012F	29,422	878	866	710	1,984	NM	4,734	12.6	2.4	0.8	6.8
2013F	30,894	1,158	1,157	948	2,650	33.6	5,284	9.4	2.1	0.8	8.5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26(월)	12/27(화)	12/28(수)	12/29(목)	01/02(월)	01/03(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56.70	1,842.02	1,825.12	1,825.74	1,826.37	1,875.41
	등락폭	-10.52	-14.68	-16.90	0.62	0.63	49.04
	등락종목						
	상승(상한)	358(5)	261(6)	317(4)	479(7)	334(12)	574(7)
	하락(하한)	451(3)	573(0)	503(1)	338(0)	491(0)	263(0)
	ADR	108.70	100.06	98.78	95.53	93.26	95.12
	이격도						
	10 일	101.07	100.39	99.65	99.64	99.75	101.88
	20 일	99.45	98.70	97.86	98.13	98.40	101.17
코스닥	투자심리	40	40	4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425	521	375	336	319	438
	거래대금 (십억 원)	2,972	4,183	3,260	3,366	3,231	4,785
	코스닥지수	501.37	491.64	495.22	500.18	506.79	513.83
	등락폭	-0.99	-9.73	3.58	4.96	6.61	7.04
	등락종목						
	상승(상한)	413(20)	292(11)	468(20)	545(19)	568(29)	617(29)
	하락(하한)	539(1)	680(4)	490(4)	395(1)	387(4)	336(3)
	ADR	105.91	97.74	99.44	97.53	98.96	99.46
코스닥	이격도						
	10 일	100.37	98.81	99.80	100.75	102.03	102.70
	20 일	100.06	98.13	98.82	99.78	101.01	102.33
	투자심리	50	50	60	70	70	80
	거래량 (백만 주)	520	678	470	482	428	584
	거래대금 (십억 원)	2,311	3,065	2,203	2,369	2,527	3,667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87.3	798.8	1,240.6	159.7	240.6	485.1	119.6	52.0	183.6	591.9
	매도	3,158.2	502.8	956.6	147.5	111.3	430.1	59.7	21.9	186.0	200.9
	순매수	-970.9	295.9	284.0	12.1	129.2	55.1	59.9	30.1	-2.4	391.0
	01 월 누계	-963.7	193.7	516.1	38.6	130.2	215.2	74.6	40.5	17.1	253.9
	12 년 누계	-963.7	193.7	516.1	38.6	130.2	215.2	74.6	40.5	17.1	253.9
코스닥	매수	3,519.6	64.2	97.8	14.1	10.7	35.5	12.6	4.2	20.7	17.7
	매도	3,503.7	68.6	96.4	11.3	12.9	51.8	7.2	4.4	8.8	30.7
	순매수	15.9	-4.4	1.4	2.8	-2.2	-16.3	5.4	-0.2	11.9	-12.9
	01 월 누계	20.2	-13.1	10.7	6.9	0.9	-16.8	7.5	3.4	8.8	-17.8
	12 년 누계	20.2	-13.1	10.7	6.9	0.9	-16.8	7.5	3.4	8.8	-17.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8,623	통신업	-19,126
운수장비	23,198	보험	-5,991
건설업	14,582	은행	-4,578
하이닉스	36,881	엔씨소프트	-12,608
LG	16,979	KT	-11,391
현대중공업	16,236	한국타이어	-7,558
GS건설	12,521	만도	-7,474
현대차	11,371	NHN	-5,020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3,755	통신업	-18,183
화학	12,482	유통업	-10,864
서비스업	10,764	은행	-7,667
LG화학	11,682	KT	-10,919
SK이노베이션	9,978	POSCO	-8,384
현대중공업	7,977	기업은행	-8,180
현대차	7,867	SK텔레콤	-6,269
호남석유	5,028	LG전자	-3,810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7,764	철강및금속	-686
운수장비	5,907	증권	-66
전기,전자	4,008	음식료품	-32
KB금융	2,852	POSCO	-2,097
LG화학	2,439	LG	-1,220
기아차	1,903	금호산업	-662
하이닉스	1,651	우리투자증권	-475
현대차	1,633	롯데삼강	-210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41,581	건설업	-3,236
서비스업	24,031	통신업	-1,993
운수장비	19,573	은행	-1,557
삼성전자	20,371	현대건설	-4,239
SK이노베이션	11,888	LS	-2,291
현대차	11,527	현대위아	-2,164
하이닉스	8,967	기업은행	-1,933
LG화학	6,826	KT	-1,896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32,230	통신업	-29,036
운수장비	71,095	은행	-10,318
화학	56,943	유통업	-10,165
하이닉스	56,181	KT	-17,234
삼성전자	37,131	엔씨소프트	-14,122
LG화학	31,327	POSCO	-10,937
현대차	30,536	기업은행	-10,287
SK이노베이션	26,884	SK텔레콤	-7,413
현대중공업	26,453	SK	-6,712
LG	22,667	효성	-6,606
GS건설	15,129	만도	-5,829
LG디스플레이	12,679	한국타이어	-5,787
호남석유	12,155	현대해상	-5,49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73,446	은행	-3,520
화학	55,031	의약품	-1,906
전기,전자	55,027	운수창고	-1,014
삼성전자	22,398	LG	-6,652
현대중공업	17,758	KB금융	-5,998
기아차	17,600	SKC	-4,435
현대차	17,333	풍산	-3,893
LG화학	12,450	두산인프라코어	-3,815
하이닉스	11,254	기업은행	-3,186
호남석유	11,250	LG디스플레이	-2,585
제일모직	10,308	농심	-2,069
KT	9,964	IHQ	-1,948
현대제철	9,810	KCC	-1,73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1,944	IT부품	-6,566
소프트웨어	1,336	반도체	-5,890
디지털컨텐츠	1,101	제약	-2,636
CJ오쇼핑	1,163	에스맥	-4,584
GS홈쇼핑	1,141	휴맥스	-2,260
케이비티	946	멜파스	-2,230
위메이드	886	원익IPS	-1,429
인터파크	736	씨젠	-1,392

연 기 금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2,298	금속	-150
디지털컨텐츠	2,059	통신서비스	-144
반도체	1,668	운송장비,부품	-111
파라다이스	2,298	서울반도체	-154
컴투스	1,606	SK브로드밴드	-144
실리콘웍스	1,237	원익IPS	-134
인프라웨어	940	멜파스	-132
비에이치아이	841	코오롱생명과학	-131

(체결기준: 백만원)

보 험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829	IT부품	-1,170
오락,문화	424	통신장비	-924
화학	201	방송서비스	-756
STS반도체	1,478	에스맥	-2,660
인프라웨어	553	휴맥스	-1,459
이노와이어	540	한글과컴퓨터	-829
멜파스	450	CJ오쇼핑	-823
제이콘텐츠리	388	서울반도체	-564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5,544	소프트웨어	-4,243
반도체	2,419	제약	-2,007
컴퓨터서비스	1,677	통신장비	-1,716
다음	5,093	안철수연구소	-4,293
네패스	4,806	덕산하이메탈	-1,545
큐로컴	1,545	셀트리온	-1,321
유비케어	723	휴맥스	-1,184
SK컴즈	616	엘엠에스	-1,161
EG	597	젬백스	-1,132
GS홈쇼핑	522	파라다이스	-1,057
에스맥	431	인피니트헬스케어	-1,014
인프라웨어	416	솔고바이오	-964
에스엠	383	메디프론	-781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6,058	IT부품	-5,321
오락,문화	3,261	통신장비	-3,679
화학	2,388	반도체	-3,361
파라다이스	3,035	에스맥	-7,221
실리콘웍스	1,974	휴맥스	-4,792
컴투스	1,834	에스엠	-2,454
STS반도체	1,560	한글과컴퓨터	-1,800
위메이드	1,558	네패스	-1,780
케이비티	1,509	서울반도체	-1,749
인프라웨어	1,484	셀트리온	-1,577
JCE	1,441	원익IPS	-1,574
GS홈쇼핑	1,438	CJ E&M	-1,479
메디포스트	1,419	골프존	-1,398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5,544	소프트웨어	-4,243
반도체	2,419	제약	-2,007
컴퓨터서비스	1,677	통신장비	-1,716
다음	5,093	안철수연구소	-4,293
네패스	4,806	덕산하이메탈	-1,545
큐로컴	1,545	셀트리온	-1,321
유비케어	723	휴맥스	-1,184
SK컴즈	616	엘엠에스	-1,161
EG	597	젬백스	-1,132
GS홈쇼핑	522	파라다이스	-1,057
에스맥	431	인피니트헬스케어	-1,014
인프라웨어	416	솔고바이오	-964
에스엠	383	메디프론	-78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대우건설	25 일	SK C&C	10 일
신도리코	24 일	한화	9 일
오뚜기	17 일	제일모직	9 일
남양유업	15 일	LS	9 일
GS건설	9 일	두산중공업	9 일
동아타이어	9 일	효성	7 일
STX팬오션	9 일	현대모비스	7 일
LG디스플레이	9 일	한국전력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포스코켄텍	13 일	한국정밀기계	7 일
네오위즈게임즈	13 일	CJ E&M	7 일
매일유업	6 일	루멘스	5 일
하나투어	5 일	이오테크닉스	5 일
에스에프에이	5 일	인터파크	4 일
테크노세미켄	4 일	SK컴즈	4 일
메디포스트	4 일	툽텍	4 일
루멘스	3 일	AP시스템	3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203,758	POSCO	45,539
하이닉스	181,331	삼성엔지니어링	42,962
현대차	77,081	하이닉스	39,029
LG디스플레이	75,725	LG화학	38,414
LG전자	45,371	기아차	30,933
OCI	41,103	삼성화재	29,921
호남석유	40,087	제일모직	19,907
GS건설	29,556	GS	14,758

KOSDAQ			
기	관	외	국 인
파라다이스	7,794	네패스	5,246
JCE	7,632	에스엠	3,188
게임빌	6,989	유비벨록스	2,318
원익IPS	5,898	씨젠	1,791
한글과컴퓨터	5,603	루멘스	1,770
다음	4,680	유니슨	1,737
위메이드	4,676	에스맥	1,661
이니시스	4,212	멜파스	1,486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132,230	55,027	187,257
운수장비	71,095	73,446	144,541
화학	56,943	55,031	111,974
하이닉스	56,181	11,254	67,435
삼성전자	37,131	22,398	59,529
현대차	30,536	17,333	47,869
현대중공업	26,453	17,758	44,211
LG화학	31,327	12,450	43,778
SK이노베이션	26,884	1,436	28,320
기아차	6,606	17,600	24,206
호남석유	12,155	11,250	23,405
현대모비스	9,033	9,287	18,320
GS건설	15,129	1,474	16,604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2,388	716	3,105
방송서비스	1,859	798	2,657
통신서비스	533	10	542
실리콘웍스	1,974	143	2,117
GS홈쇼핑	1,438	522	1,961
인프라웨어	1,484	416	1,899
위메이드	1,558	106	1,664
JCE	1,441	56	1,498
에이블씨앤씨	973	80	1,053
인터파크	767	284	1,050
CJ오쇼핑	688	281	969
네오위즈인터넷	909	20	929
하나투어	906	6	91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SK	18 일	웅진코웨이	14 일
한화	15 일	외환은행	11 일
효성	8 일	아모레G	8 일
한화케미칼	6 일	오뚜기	8 일
동국제강	4 일	대한제강	8 일
한진중공업홀딩스	4 일	풍산	8 일
현대제철	4 일	현대엘리베이	7 일
POSCO	4 일	쌍용양회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엘앤에프	16 일	현진소재	10 일
SK컴즈	11 일	심텍	9 일
이오테크닉스	7 일	우주일렉트로	9 일
웹젠	7 일	모두투어	7 일
동진세미캠	6 일	네오위즈게임즈	7 일
DMS	6 일	KCC건설	6 일
평화정공	3 일	포스코 ICT	5 일
큐렉소	3 일	OCI머티리얼즈	5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SK텔레콤	-46,944	LG디스플레이	-24,466
SK	-30,342	아모레퍼시픽	-14,465
삼성화재	-25,776	외환은행	-13,520
삼성엔지니어링	-23,389	OCI	-12,575
엔씨소프트	-22,358	S-Oil	-12,381
POSCO	-18,673	풍산	-10,750
효성	-15,540	LG전자	-10,470
기업은행	-14,928	두산인프라코어	-6,191

KOSDAQ			
기	관	외	국 인
휴맥스	-11,726	덕산하이메탈	-4,154
에스맥	-8,586	팅크웨어	-4,074
네오위즈게임즈	-8,326	네오위즈게임즈	-3,975
CJ E&M	-5,941	휴맥스	-3,020
SK컴즈	-4,883	아가방컴퍼니	-2,815
인프라웨어	-3,103	다음	-2,648
셀트리온	-2,826	서울반도체	-2,619
와이지-원	-2,590	잉크테크	-2,319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은행		-10,318		-3,520 -13,837
의약품		-1,795		-1,906 -3,701
기계		-664		-159 -822
기업은행		-10,287		-3,186 -13,473
현대그린푸드		-4,280		-51 -4,330
아시아나항공		-3,491		-12 -3,504
KCC		-1,289		-1,732 -3,021
SK케미칼		-547		-1,089 -1,637
녹십자		-460		-1,071 -1,531
LG생명과학		-1,497		-8 -1,505
동양생명		-504		-531 -1,036
웅진코웨이		-323		-663 -986
현대상사		-827		-107 -934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IT부품		-5,321		-1,148 -6,469
통신장비		-3,679		-1,716 -5,395
제약		-873		-2,007 -2,880
휴맥스		-4,792		-1,184 -5,976
안철수연구소		-497		-4,293 -4,790
셀트리온		-1,577		-1,321 -2,898
원익IPS		-1,574		-315 -1,889
서울반도체		-1,749		-91 -1,839
멜파스		-1,210		-220 -1,430
차바이오텐		-799		-301 -1,100
심텍		-893		-72 -966
포스코 ICT		-858		-43 -901
하이록코리아		-606		-74 -68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OCI	72	15,521
LG전자	162	12,380
하이닉스	378	8,753
S-Oil	81	8,120
삼성전자	5	5,362
삼성전기	62	4,888
LG디스플레이	187	4,710
삼성SDI	17	2,32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네오위즈게임즈	40	1,708
아가방컴퍼니	22	427
세운메디칼	74	425
파라다이스	30	252
오성엘에스티	22	248
홈센타	41	228
원익IPS	18	174
나우콤	19	171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POSCO	5,980	2,248,430
OCI	4,864	1,048,233
삼성전자	932	1,006,436
삼성전기	8,611	682,877
LG전자	7,518	572,087
하이닉스	22,776	534,100
현대차	1,942	412,704
삼성SDI	2,645	363,66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3,537	483,959
서울반도체	6,067	127,720
원익IPS	4,337	43,589
안철수연구소	238	38,057
덕산하이메탈	1,161	31,288
멜파스	1,015	26,891
크루셜텍	1,713	25,693
주성엔지니어링	2,063	23,006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기계	296	금융업	-9,846
종이, 목재	187	운수장비	-5,029
화학	174	서비스업	-3,202
아시아나항공	1,347	우리금융	-3,365
금호타이어	1,213	KB금융	-3,280
두산인프라코어	881	POSCO	-2,871
한화케미칼	522	한진해운	-2,184
SBS미디어홀딩스	447	신한지주	-1,442
영진약품	302	삼성중공업	-1,264
현대상선	231	기아차	-1,231
OCI	228	삼성증권	-1,214
LG유플러스	219	LG	-1,210
세아베스틸	205	LG디스플레이	-1,13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기계, 장비	112	제약	-665
통신장비	87	컴퓨터서비스	-453
출판, 매체복제	48	IT부품	-321
서울반도체	228	안국약품	-530
한글과컴퓨터	198	재영솔루텍	-518
에버다임	118	오픈베이스	-436
시노펙스	117	인스프리트	-422
원익IPS	94	덕산하이메탈	-318
터보테크	89	STS반도체	-242
아나패스	85	파라다이스	-208
코디에스	85	셀트리온	-198
바이넥스	82	세종	-179
아바코	82	에코플라스틱	-144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27(화)	12/28(수)	12/29(목)	01/02(월)	01/03(화)
외국인	193.7	193.7	332.5	95.7	30.5	-16.6	-102.3	295.9
기관계	516.1	516.1	859.5	199.0	-17.0	190.6	232.2	284.0
(투신)	215.2	215.2	343.9	-19.0	16.1	159.5	160.1	55.1
(연기금)	22.4	22.4	276.7	105.6	96.5	52.1	21.8	0.6
(은행)	40.5	40.5	-12.0	12.2	-10.7	-54.0	10.4	30.1
(보험)	130.2	130.2	129.9	16.7	-7.9	-8.9	0.9	129.2
개인	-963.7	-963.7	-1,087.7	-209.3	184.2	-98.9	7.2	-970.9
기타	253.9	253.9	-104.3	-85.4	-197.7	-75.1	-137.1	391.0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12/26(월)	12/27(화)	12/28(수)	12/29(목)	01/02(월)
KOSPI	1,124.47	1,682.77	2,051.00	1,856.70	1,842.02	1,825.12	1,825.74	1,826.37
고객예탁금	9336.3	12072.0	14068.5	18012.7	18241.8	18250.2	17680.2	17462.5
(증감액)	-746.3	-714.3	-228.9	-132.5	229.1	8.4	-570.0	-217.7
(회전율)	46.9	52.6	51.5	29.9	40.9	30.4	34.2	33.6
실질예탁금 증감	-624.7	-551.4	-655.2	-181.7	-245.9	-15.0	-695.2	-20.4
신용잔고	1502.0	4359.5	5938.3	4539.2	4516.0	4538.0	4476.3	4473.9
미수금	145.1	240.2	192.3	164.9	149.7	173.2	187.7	163.3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2/26(월)	12/27(화)	12/28(수)	12/29(목)	01/02(월)
전체 주식형	104,270	12	12	-1	70	56	28	12
(ex. ETF)		-11	-11	-55	50	53	28	-11
국내 주식형	72,765	20	20	5	73	59	34	20
(ex. ETF)		-4	-4	-49	53	56	34	-4
해외 주식형	31,505	-8	-8	-6	-3	-3	-6	-8
(ex. ETF)		-8	-8	-6	-3	-3	-6	-8
주식 혼합형	11,985	-4	-4	-33	-26	-14	41	-4
채권 혼합형	18,281	27	27	9	-114	-459	-156	27
채권형	44,957	23	23	-474	-48	-54	-107	23
MMF	53,552	293	293	-1,856	-1,869	-1,927	-1,022	29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27(화)	12/28(수)	12/29(목)	01/02(월)	01/03(화)
한 국	175	175	212	26	11	—	-89	263
대 만	136	136	548	94	153	164	-44	180
인 도	0	0	-100	32	-116	-16	—	—
인도네시아	88	88	168	3	31	46	1	87
태국	0	0	28	1	11	17	—	—
남아공	0	0	159	37	82	40	—	—
필리핀	3	3	32	7	22	—	—	3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0년	12/26(월)	12/27(화)	12/28(수)	12/29(목)	01/02(월)	01/03(화)
회사채 (AA-)	4.27	4.27	4.27	4.27	4.21	4.21	4.22
회사채 (BBB-)	10.26	10.06	10.06	10.06	10.01	10.01	10.02
국고채 (3년)	3.38	3.38	3.39	3.39	3.34	3.34	3.35
국고채 (5년)	4.08	3.53	3.53	3.52	3.46	3.47	3.49
국고채 (10년)	4.52	3.85	3.85	3.85	3.79	3.79	3.80
미 국채 (10년)	3.36	2.02	2.01	2.01	1.88	—	—
일 국채 (10년)	1.13	0.98	0.98	0.98	0.99	—	—
원/달러	1,134.80	1,155.00	1,158.80	1,156.00	1,151.80	1,155.80	1,150.80
원/엔	1,392.56	1,481.14	1,489.00	1,488.00	1,492.00	1,503.00	1,499.00
엔/달러	81.49	77.98	77.83	77.72	77.24	76.91	76.79
달러/유로	1.33	1.31	1.31	1.30	1.29	1.29	1.29
DDR3 1Gb (1333MHz)	1.09	0.62	0.62	0.63	0.64	0.65	—
NAND Flash 16Gb (MLC)	4.84	2.82	2.82	2.82	2.81	2.81	—
CRB 지수	327.11	—	308.27	305.49	305.30	—	—
LME 지수	4,164.25	—	3,315.0	3,240.8	3,306.0	—	—
BDI	1,773	—	1,738	1,738	1,738	—	—
유가 (WTI, 달러/배럴)	89.84	—	101.34	99.36	98.83	—	—
금 (달러/온스)	1,405.90	—	1,595.50	1,564.10	1,566.80	—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203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2월 27일	240.79	238.80	-1.09	-1.99	-1.36	219,126	80,699	-179
12월 28일	238.15	238.30	1.64	0.15	0.60	172,332	79,850	-849
12월 29일	238.08	238.60	1.62	0.52	0.64	191,888	79,641	-209
1월 2일	238.70	239.25	1.53	0.55	0.39	162,207	78,467	-1,174
1월 3일	245.82	247.00	1.58	1.18	1.29	200,789	81,806	3,339

###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2월 27일	2,089	-1,422	-1,105	-1,517	-115	12	490	0
12월 28일	-310	-1,079	-55	-468	159	5	259	0
12월 29일	-366	-570	444	-567	376	30	617	0
1월 2일	1,047	-1,637	-632	-38	-261	115	-484	46
1월 3일	10,772	-124	-5,489	-2,960	-1,400	-78	-1,077	-96
누적포지션	-1,836	-54	3,364	-1,947	5,928	43	-685	25

###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2월 27일	574	560	-13	430	460	31	144	100	-44	7,695	7,247
12월 28일	696	461	-235	510	450	-60	186	11	-175	7,630	7,157
12월 29일	631	608	-23	479	551	72	152	57	-94	7,709	7,154
1월 2일	598	266	-332	466	261	-205	132	5	-127	7,518	6,826
1월 3일	372	1,325	954	360	831	471	12	494	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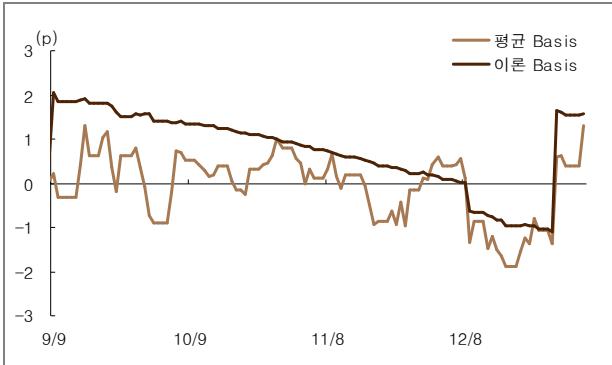
###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28.01	303	1,163,932	2.65	250.00	6.25	11,684	1,841	25.48
31.07	23,926	583,754	4.10	247.50	4.75	25,260	6,027	25.73
30.37	-10,058	153,896	5.20	245.00	3.80	59,829	7,989	27.96
30.93	-10,359	86,125	6.70	242.50	2.84	101,510	9,032	28.65
33.39	-7,189	47,023	8.65	240.00	2.05	394,637	27,229	29.10
34.89	-2,292	15,764	10.60	237.50	1.61	344,770	15,390	31.00
35.80	-1,228	4,669	12.60	235.00	1.15	400,455	29,275	31.66
38.73	-6	1,933	14.90	232.50	0.91	311,964	7,591	33.56
41.20	-366	1,764	17.20	230.00	0.65	606,224	10,030	34.36
42.50	-38	322	19.45	227.50	0.47	296,321	8,483	35.36
46.07	-119	546	21.90	225.00	0.35	374,881	9,679	3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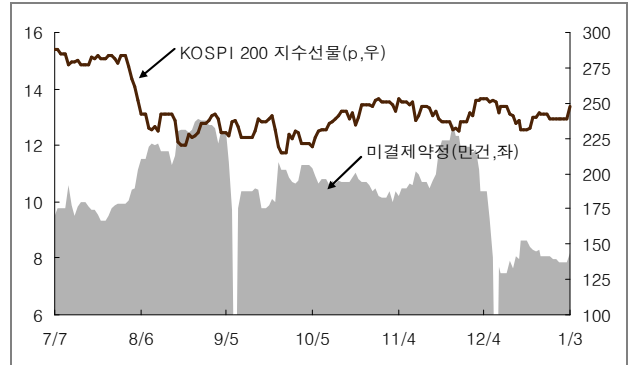
##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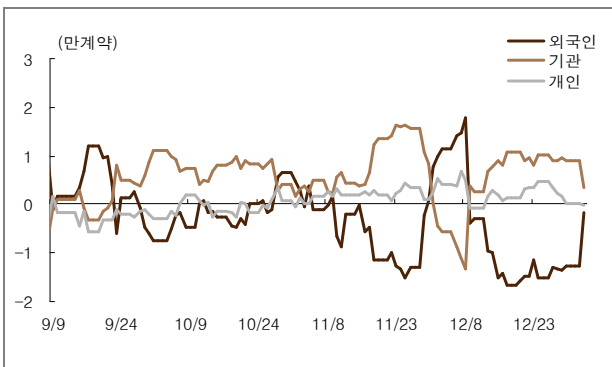
- 평균 Basis: 1.29 (전 거래일 대비 0.90 상승)
- 이론 Basis: 1.58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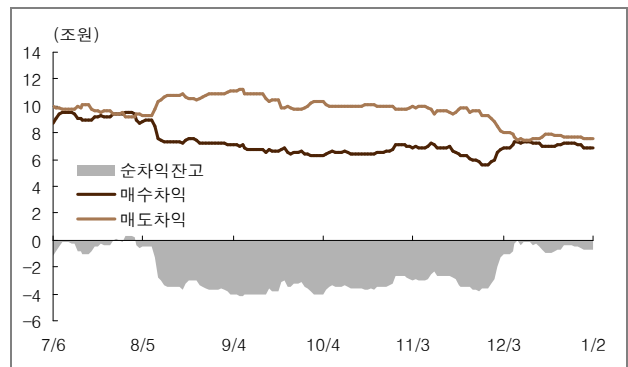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3,339 계약 증가한 81,806 계약
- 선물가격(247.00): 전 거래일 대비 7.75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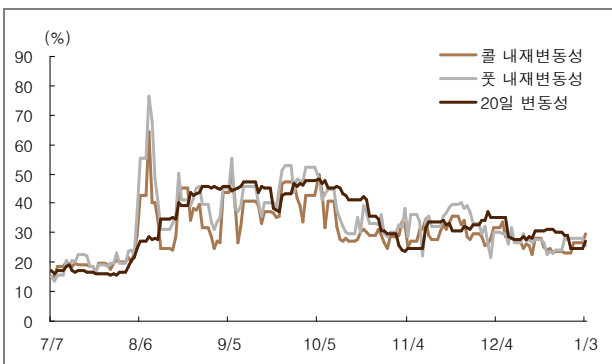
- 외국인: 10,772 계약 순매수
- 기관: 5,489 계약 순매도 / 개인: 124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4,824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4,712 억원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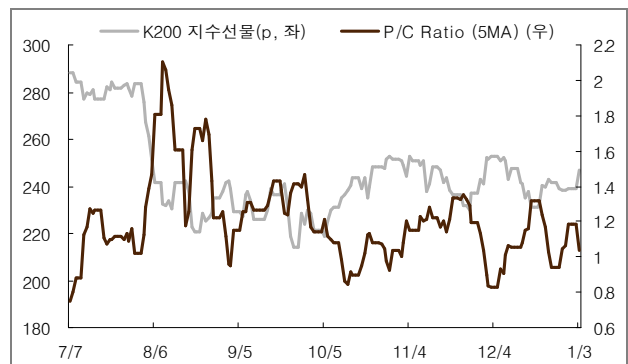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29.8% / 풋 25.4%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27.06%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3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03 기록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6	27	28	29	30
<p>韓&gt; 1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99, n/a, 103) 美&gt; 10월 S&amp;P/CS 20개 도시 MoM SA (-0.62%, -0.40%, -0.57%) 1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64.5, 58.9, 56.0) 유럽&gt; 프랑스 국제 입찰 中&gt; 11월 선행지수 (미확정) (100.18, n/a, 100.40) 日&gt; 11월 자동차생산 YoY (4.5%, n/a, 20.3%) 11월 건설수주 YoY (21.0%, n/a, 24.3%)</p>	<p>韓&gt; 1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99, n/a, 103) 美&gt; 10월 S&amp;P/CS 20개 도시 MoM SA (-0.62%, -0.40%, -0.57%) 1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64.5, 58.9, 56.0) 유럽&gt; 프랑스 국제 입찰 中&gt; 11월 선행지수 (미확정) (100.18, n/a, 100.40) 日&gt; 11월 자동차생산 YoY (4.5%, n/a, 20.3%) 11월 건설수주 YoY (21.0%, n/a, 24.3%)</p>	<p>韓&gt; 1월 BSI-제조업 (79, n/a, 83) 1월 BSI-비제조업 (79, n/a, 82) 11월 산업생산 YoY (5.6%, 5.9%, 6.2%) 유럽&gt; 이탈리아 국제 입찰 日&gt; 11월 국내 CPI YoY (-0.5%, -0.4%, -0.2%) 11월 산업생산 YoY (-4.0%, -2.0%, 0.1%)</p>	<p>韓&gt; 11월 서비스업 생산 YoY (2.6%, n/a, 3.5%) 美&gt;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8.1만, 37.5만, 36.4만) 11월 미결주택매매 MoM (7.3%, 1.5%, 10.4%) 유럽&gt; 이탈리아 국제 입찰</p>	<p>韓&gt;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4.2%, 4.0%, 4.2%)</p>
2	3	4	5	6
<p>韓&gt; (1/1) 12월 무역-수출 YoY (12.5%, 6.3%, 13.8%) (1/1) 12월 무역-수입 YoY (14.0%, 11.1%, 11.3%) 유럽&gt; 12월 PMI-제조업 (46.9, 46.9, 46.9)</p>	<p>美&gt; 12월 ISM 제조업지수 (n/a, 53.4, 52.7) 12월 ISM 구매물가지수 (n/a, 48.0, 45.0)</p>	<p>美&gt; 주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2.6%) 11월 제조업 수주 MoM (n/a, 2.0%, -0.4%) 유럽&gt; 12월 PMI-서비스 (n/a, 48.3, 48.3)</p>	<p>美&gt;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7.5만, 38.1만) 12월 ADP 취업자 변동 (n/a, 17.5만, 20.6만) 12월 ISM 비제조업지수 (n/a, 53.0, 52.0) 日&gt; 12월 본원통화 YoY (n/a, n/a, 19.5%)</p>	<p>美&gt; 12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n/a, 15.0만, 12.0만) 12월 실업률 (n/a, 8.7%, 8.6%) 유럽&gt; 12월 유로권 소비자자기대지수 (n/a, -21.2, -21.2) 12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n/a, -0.9%, -0.4%)</p>
9	10	11	12	13
<p>韓&gt;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美&gt; 11월 소비자 신용지수 유럽&gt; 1월 선택스 투자자기대지수 독일-프랑스 정상회담</p>	<p>美&gt; 1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中&gt; 12월 무역-수출 YoY 12월 무역-수입 YoY</p>	<p>美&gt; 주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中&gt; 12월 외환보유고 (미확정) 12월 신규위안대출 (미확정) 12월 통화공급-M2 (미확정)</p>	<p>美&gt;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유럽&gt; ECB 금리 공시 스페인/이탈리아 국제입찰</p>	<p>韓&gt; 금통위 금리 결정 12월 수출물가지수 YoY 12월 수입물가지수 YoY 美&gt; 12월 수입물가지수 YoY 11월 무역수지 1월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 유럽&gt; 이탈리아 국제입찰 中&gt; 12월 산업생산 YoY (미확정) 4Q 실질 GDP QoQ (미확정) 12월 소매판매 YoY (미확정)</p>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KIS Research, Bloomberg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